

서호인의 '소설처럼'



당신의 최애는 누구인가

-우사미 린 '최애, 타오르다'

당신의 '최애'는 누구인가? 최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긴 신조어로,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을 뜻한다.

다. 그 가까운 거리에 최애에 몰입고 있는 누군가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이자 수십 만 부가 팔린 일본의 베스트셀러 '최애, 타오르다'에는 최애를 덕질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주인공 '아카리'의 최애는 혼성 아이돌 그룹 '마자마좌'의 멤버 '우에노 마사키'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뉴스가 들려온다. 마사키가 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소식이다.

그런 소식에 흔들림 없이 마사키를 응원하고 지지한다. 평소처럼 블로그에 마사키에 대한 글도 정성스럽게 올린다.

아카리는 실상 방지되었다. 불안정한 어머니와 감정 기복이 심한 언니 사이에서 10대의 불안과 방황을 최애에게 투영하고 있던 것이다.

최애는 말 그대로 다 타올라 버렸다. 타서 재만 남았다. 하지만 그의 실체는 여전히 남아서 보란 듯이 약혼 반지를 끼고 기자회견을 한다.

그렇 수 있을까? 아카리가 다시 두 발로 서는 날, 비로소 알 수 있을지. 당신의 최애는 누구인가.

더 나아가 최애의 표정과 말투를 분석하고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탐구한다.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일은 대체로 즐겁고 기꺼운 행위다.

누군가의 최애가 되어 버린 스타들의 사회적 책임과 행동의 무게감이 더욱 컸겠음은 물론이다.

의료칼럼

약, 몇 개나 드시나요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강진의원 원장

환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다섯 개 이상 약물을 처방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46.6%였으며, 이 중 부적절한 처방은 47.0%이었다.

국내 다제약물 복용의 현황 및 유형 분석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의료기관 외래 방문 일수와 입원 일수, 방문의료기관 수가 더 많았으며

노인 환자는 여러 의사로부터 다양한 약물을 처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처방 일반 약, 각종 한약, 건강 보조식품 등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 복용 상황을 알기는 매우 힘들다.

오랫동안 사용하던 약물은 연령과 신체의 변화와 질병 상태, 기능 상태의 변화에 따라 약의 분비나 대사가 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우뚝 선 광주

광주시가 대한민국 AI 선도 도시로 인정받으면서, 국내외 AI 기업들의 발길도 광주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인공지능산업 융합사업단은 국가 AI 데이터 센터 및 실증 장비 등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재 양성, AI 창업 펀드 등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 추진 등을 통해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국가 AI 데이터센터는 AI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제공 등을 하게 되는데, 구축하는 컴퓨팅 파워는 88.5페타플롭스(PF), 저장 용량은 107페타플롭스에 이른다.

사업단은 또 미래 산업인 AI 사업의 성공은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 따라 AI 우수 인재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횡수를 간단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약물 간 상호 작용, 약물-질병 간 상호 작용, 약물과 함께 투여된 음식이나 영양소의 상호 작용에 대해 숙지하고,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지 시 확인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스스로도 다제약물 복용의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현재 먹고 있는 약에 대해 알려주는 게 좋다.

이외에도 병원 진료를 받을 때는 약의 이름과 보관법, 복용법,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음료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병원이나 약국을 갈 때 사전에 작성한 목차를 지참해 의사, 약사에게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는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비롯한 X+AI 융합 교육 과정 등이 광주 내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업단은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과 함께 오는 2025년부터 시작될 2단계 사업 준비도 치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AI 실증 확대와 함께 AI 산업 발전의 속도에 맞춰 관련 법·제도도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AI 실증 확대와 함께 AI 산업 발전의 속도에 맞춰 관련 법·제도도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社說

화물차 운행 위한 요소수 확보 대책 시급하다

광주·전남 지역 디젤 차량 운전자들 사이에서 요소수(尿素水)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이 배출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광주·전남에 등록된 디젤 차량은 81만 4519대로 이 가운데 40%가 화물차여서 대부분 SCR을 장착하고 있다.

관람객 복적 '아트 광주21' 가능성 보였다

광주 유일의 국제 아트페어인 '아트광주 21'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5억 7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엇그제 막을 내렸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 온 개인 작가 부스를 없애는 대신 갤러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아트페어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돋보였다.

이번 아트광주의 판매 실적을 보면 한 국국제아트페어(350억 원)나 부산아트페어(65억 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때문에 주유소·대형마트·카센터 등은 디젤 차량 운전자로 북적이고 있지만 요소수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드물고, 화물 전용 주유소 등에만 소량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그동안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7000원~9000원에 살 수 있었던 10리터 짜리 요소수가 요즘엔 5만~1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화물차 운행 중단은 물류 대란으로 이어져 업종을 불문하고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막대한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미술시장의 여건에 차이가 있지만 비엔날레 개최도시라는 위상을 감안하면 미흡한 성과다.

아트페어는 일반 전시회와 달리 작가들의 작품 판매가 주목적이다.

無等鼓

몇 달 전 우편으로 배달된 서양화가 양경도의 '하늘 빛 구름' 도록을 보니 조금 특이한 데가 있었다.

양 작가는 지난 2000년부터 고도근시에 따른 망막박리로 사물이 구부러져 보이는 굴절현상과 시야가 부분적으로 지워져 보이는 장애를 겪고 있다.

양 작가는 지난 2000년부터 고도근시에 따른 망막박리로 사물이 구부러져 보이는 굴절현상과 시야가 부분적으로 지워져 보이는 장애를 겪고 있다.

한글 점자의 날

오늘(11월4일)은 '한글 점자의 날'이다. 송암 박두성 선생과 제자들이 현재 쓰고 있는 한글 점자의 원형인 '훈맹정음(訓謄正音)'을 만들어 반포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한 날이다.

정음'은 1829년 프랑수아르 명학교 교사였던 브라이유가 고안해 낸 '6점형 점자'를 이용해 한글을 점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친 '점자의 날'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손끝으로 읽는 세상'(4일부터 6일까지)이라는 행사를 기획했다고 한다.

점자 명함 만들기, 점자를 읽고 배우는 강좌 등으로 구성된 이 행사를 통해 점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좋겠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기고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정부가 광주시를 '국가 인공지능(AI) 혁신 거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날 28일 제25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17개 시도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데이터랩 등 대규모 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연계해 AI 제품과 서비스의 윈스톱 개발 거점이 되도록 하고, 에너지-콘텐츠 등과 AI의 융합 모델을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